

# 책을 안 읽는 이유

윤구병

충북대 교수·철학과

출판운동은 문화운동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애초에 글은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정보소통과 통제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지배계급의 독점물이 되어 강력한 이념적 도구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세까지도 몇 안되는 장사아치들을 빼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새로운 지배계급이 된 자본가들은 중세의 공장제 수공업자들과는 달리 기술을 匠人에서 徒弟로 손재간과 눈썰미를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는 글과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노동자 가운데 일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싹이다. 공교육이 의무교육의 형태로 보편화하면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을 빼고는 아무나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다. 출판이 지배문화에서 대중문화로 탈바꿈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기나긴 역사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출판문화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이해관계에 봉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출판문화가 발전하려면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 많이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야 한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탓을 낮은 문화수준과 의식에 돌리고 있지만 더 큰 허물은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책 사 볼 돈도 시간도 안 준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책을 가장 안 보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같은 일반 '민중' 들이다. 안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해야 옳다.

우리 출판운동이 사회변혁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자, 보라. 여기에 돈과 시간이 있으면 책을 사서 읽을 잠재적인 독자가 수백만, 수천만이나 있다. 이 잠재적인 독자들을 책방으로 끌어내는 지름길은 밤새워 일을 하지 않고도 쌈지돈이 두둑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는 길밖에 없다. 안 그런가?

그러나 얼마 전에 문화공보부 장관을 했다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이 되면서 나라같이 뛰어오르는 사글세 값을 대지 못하여 시금치나 오이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서민들에게 한자리 숫자보다 임금을 더 올려주는 자본가가 있으면 치도곤이를 앵기겠다는 서슬퍼런 공갈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책 많이 읽는 국민이 되기는 애시당초 글렀다. 따라서 출판문화가 발전하기도 글렀다. 참 딱한 일이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제풀에 주저않고 미래의 독자들을 위해서 애쓰는 출판인들의 꾀꿍한 모습은 나를 감동시킨다. 내가 언 땅에서 찾아낸 새 순 하나. 사계절 출판사에서 「언니, 우리 힘내자. 알았지?」라는 책을 냈다. 집단 해고로 일터를 잃고 500일 가까이 싸우고 있는 '가방끈이 짧은' 여성노동자들이 제 손으로 쓴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의 글을 묶은 것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책이다. 반갑다. 반갑고 고맙다.

뉴스	2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발효·외
기획	4	우리지도 어떻게 만들어져왔나 삼국시대부터 해방이후까지의 지도발달사
	6	지도제작출판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본도 토대로 출판사 자체제작
서평	8	김홍식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이호철 브와에 「조절이론」- 박명호
	9	대강 「오늘의 프랑수아철학사상」- 이광래 최성만 외 「윤이상의 음악세계」- 홍정수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김일수 이두영 「출판상황론」- 이정춘
	11	황상의 「역사속의 보건의료」- 신동원 김용직 「임화문학연구」- 정현기
	12	사부로 「프랑스혁명과 수학자들」- 유지영 이문열 「시인」- 김태현
표지	13	새로운 책서문물문화의 길 연다 4월 15일 부활되는 도서상품권
초점	14	전작출판, 과연 뿌리내리려나 작가역량·출판사투자 조화되야
출판화제	16	파고 높은 정보혁명시대의 물결 정보화사회의 대응전략 다룬 책들
	17	이미지 중심의 '보는 책' 시대 이끈다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백종 넘어서
화제의 책	18	뉴스에 미친 사람들이 이뤄낸 방송혁명
	19	한국표준색채도표집
이 책 그 사람	20	「오장군의 발톱」낸 박조열씨 「재미있는 형법」낸 구수희씨
	21	「장터순례」낸 이철호씨 「꿈꾸는 통소쟁이」낸 김명곤씨
나의첫책	22	개작 거듭한 장편소설 광장 - 최인훈
화제의 인물	23	일본서 고서점 운영하는 재일교포 郭日出씨
해외화제	24	일본출판의 새 쟁점 '복사권' - 이봉호
세계의 출판	26	모순투성이 작가의 따뜻한 삶·외
	28	독자서평
	30	어린이책 들춰보기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